

# 안면도의 청동기시대 패총과 진도의 현대조개무지

- 민족지고고학적 방법의 적용에 의한 고고학유적의 해석시도 -

裴基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I. 서론

발굴한 유적이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던가를 알아내는 일은 고고학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실재로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해마다 많은 수의 유적이 발굴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은 현실이다. 사실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이론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심각하게 토론이 이루어진 것도 많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해석과 설명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고고학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국고고학은 앞으로 학문적인 성숙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발달된 연구방법론을 한국고고학의 자료에 시도하여 보는 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방법론의 개발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고고학적인 방법론은 한마디로 한다면 고고학자료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석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여가는가를 안내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고학적인 자료는 이미 그 물질을 남겼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남는 가는 추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추론은 결국 객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생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객관화의 과정이 고고학연구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래에 고고학계에는 이러한 객관화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 민족지고고학적인 연구방법일 것이다(민족지고고학에 대한 토론 또는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Binford 1989, Donnan and Clewlow 1974, Gould 1978, Hodder 1982, Kramer 1979, 등 참조). 유사한 양상의 물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관찰함으로써 고고학유적에서 드러난 양상을 이해하는데 참고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과 고고학적인 상황의 사이를 오가며 고고학적인 상황의 이면에 숨어있는 물질적인 변형의 주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물론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한 상상성이 곧바로 고고학적인 해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포함된 물질문화의 현장을 관찰함으로써 고고학적인 자료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복원에 획기적인 레퍼런스를 제공받으로서 설명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고고학에 있어서 자료 중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설명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현대 한국의 물질문화의 양상이 과거의 고고학적인 문화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민족지고고학적인 방법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에 대한 민족지적인 관찰이 고고학적인 유적의 이해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소백산 등지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반경과 그 식물의 종류에 대한 관찰과 그 수확량에 대한 자료, 자연부락의 구조와 그 발전단계에 대한 조사, 제주도 해녀의 작업반경과 해산물의 종류 그리고 단위 수확량에 대한 조사, 그리고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섬의 개간과정에 대한 인터뷰조사 등은 고대인의 행위의 한계와 그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조개를 채집하는 생계활동 역시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해안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행위 중의 하나이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해안자원을 이용하기 시작한 중석기 또는 신석기 이후 줄곧 이루어져 와서 우리 나라의 해안에는 많은 패총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패총유적의 형성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고고학적인 패총 유적의 형성과정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소논문은 민족지적인 관찰을 이용하여 서해안의 안면도에서 발굴된 패총유적의 유구상황을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법 자체나 해석의 결과가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떤 특정한 가설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는데 중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패총형성에 관한 민족지적인 관찰은 진도의 해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안면도의 패총유적은 1990년의 제3차 발굴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선사고고학분야에 있어서 패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특히 현재의 고고학적인 자료의 성격으로 볼 때 경제생활의 복원을 위한 가장 양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패총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II. 안면도의 패총유적

중부서해안에는 해안과 섬들에 많은 패총이 분포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를 거친 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본격적인 조사를 거친 곳은 전북의 해안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계화도의 패총이 있을 따름이다. 안면도의 패총유적은 이미 1983년에 한양대학의 박물관팀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이후에 동박물관에 의해서 1988년에서 부터 1990년까지 3차례의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 지역에 있어서 발굴조사된 패총유적이 귀해서만이 아니라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이나 종류에 있어서도 고고학적인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차와 2차의 유적발굴에 대하여서는 이미 상세한 보고서가 간행되었는데 (김 과 심 1990 ; 김 과 안 1991) 3차 발굴은 아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논문의 주요한 관심은 이 3차 발굴에서 드러난 유구의 해석에 관한 방법적인 시도이다.

### 고남리 패총의 위치와 자연환경

조사된 패총은 안면도의 남부에 해당되는 고남면 고남리의 서향의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패총의 서편으로 고남면사무소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다(도면1). 고도의 서편에는 현재 논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의 말에 의하면 한 때 바다물이 현재의 도로 가까운 지점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패총이 있는 지역의 앞바다는 작은 만을 이루

고 있으며 수심은 극히 낮으며 일부에 모래사장이 있는 곳도 있으나 갯펄로 남아 있는 곳이 많으며 또한 작은 자갈이 갯펄과 혼재한 곳도 있다.

#### 제 1,2차 발굴에서 나타난 고고학적인 자료

패총에서 나타난 토기로 볼 때 이 패총유적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쳐서 형성된 유적으로 밝혀졌다. 1차와 2차 발굴기간 동안 각각 2개의 패총이 발굴되었는데 1차와 2차에서 각기 인접한 능선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1차 발굴에서는 구덩이로 된 유구 이외는 패각층내 유물이 산포되어 발굴되었으며 또한 2차 발굴에서는 제2호 패총에서 2개의 주거지 외에 야외화덕자리와 구덩이유구들이 발견되었다. 유물로는 1차 발굴의 1호 패총에서는 무문토기들이 주로 출토되었는데 발형토기, 호형토기, 붉은 간토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기 중에는 들린바닥을 가진 굽이 발견되었다. 석기로는 유경식 삼각석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외에 타제 또는 마제의 석부들 그리고 반월형석도와 돌칼, 석창, 흙들 등이 출토되었다. 제2호 패총에서는 여러가지 문양을 가진 빗살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영성한 어골문, 단사선문 이외에 횡주의 점열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도패총의 문양과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석기는 많지 않은데 돌도끼와 돌끌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발굴에서 24종의 바다 조개류 그리고 12종의 소형 육지 연체류가 발견되었고 이외에도 소형의 바다 연체류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돔, 농어, 가오리 그리고 참복 등의 어류 또한 노루, 바다사자 그리고 멧돼지 등의 포유류 동물들도 발굴되었다.

2차 발굴에서 드러난 1호 패총에서는 주거지 2기와 2곳의 야외화덕자리 그리고 구덩이유구 1개소가 발견되었다. 2호 패총에서는 주거지유구 2개소가 노출되었다. 1호 패총의 주거지들은 반수혈으로 모죽인의 네모꼴모양을 하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이 타원형의 얇은 구덩이로 화덕을 만들고 있다. 1호 주거지와 관련하여 동서 190cm, 남북 150cm 크기의 용도미상의 타원형 구덩이 유구가 발견되었는데 깊이는 40cm에 이르는 부분도 있다. 야외화덕자리에는 불에 그을린 돌들과 조개 그리고 숯 등이 드러났다. 2호 패총에서 노출된 3호 주거지는 타원형에 가까운 네모꼴을 하고 있는데 중심에 화덕자리로 보이는 얇은 구덩이가 있다.

1호 패총에서의 민무늬토기는 발형토기와 호형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구순각목문 토기나 점토대토기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붉은간토기편도 보이며 바닥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이 빗살무늬토기는 구연부 가까운 곳에 단사선문을 넣고 몸통부에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것도 포함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석기로는 유경식 삼각석촉과 유엽형이 출토되고 있고 돌칼, 도끼 등이 출토되고 소형 곡옥도 출토되었으며 뼈로 만든 살촉, 낚시바늘, 칼 등이 발견되었다. 2호 주거지의 토기와 석기들도 이와 유사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주거지에서는 갈돌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불에 탄 수수도 보고되었다. 제2차 발굴에서는 10종의 포유류의 뼈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에는 우수리사슴, 멧돼지, 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류도 6종이 확인되었고 19종의 어류가 현재 확인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돔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19종의 조개류 중에는 굴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반지락이다. 이외에도 육지산 달팽이 종류도 확인되고 있다.

#### 제3차 발굴에서 드러난 상황

제3차 발굴은 2차 발굴지점이 있는 능선의 아랫부분으로 약 200여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표고가 약 5미터 정도 낮으며 능선의 정상에 해당된다. 1990년 12월에 발굴되었는데 지표상에는 조개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고 또한 동그스럼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패각이 두텁게 쌓여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얇은 패각층아래에 유구가 드러났는데 대형의 돌덩이가 불규칙하게 드러났으며 이들은 중첩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또한 둘레에 여러가지 규모의 두덩이가 드러났다(도면2;사진1-2). 이 구덩이들에는 패각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주위의 패각보다는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많았다. 돌덩이들은 주위가 마모되어 매끈한 것도 있고 또한 할석같이 모가 지는 것도 있었으며 크기는 15cm 내외의 것으로부터 큰 것은 60여cm 크기의 것도 있었는데 최소한 2개 이상의 층으로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구도 하나의 행위단위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앞서의 1차와 2차 발굴에서와 같이 정연한 층위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민무늬 토기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간혹 퇴행의 빗살무늬토기편이 간취되고 있다. 유구의 중심에 놓인 직경 60cm 내외의 구덩이에서는 조개이외에 사슴류(아마도 우수리사슴)의 턱뼈가 발견된 바 있다.

### 3차 발굴유구의 돌들

패총의 두께가 두텁지 않은데 깊은 것이 20cm 내외이며 큰 3돌이 있는 지점이 이보다 얇다. 아마도 많은 패각이 경작 또는 자연유실로 산실되었으리라 보여지며 사실 밭의 낮은 곳에서 모가 죽은 천석모양의 돌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들은 이 유구에서 경작시 빠져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많은 양의 큰 돌들을 빼 내었으며 경작에 큰 불편이 있었다고 하는데 패총의 많은 부분이 유실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남아 있는 돌들의 배치를 보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패각층 속에 있는 비교적 작은 20~30cm 정도 크기의 돌들로, 할석이 많고 불규칙한 배열을 보이고 있으나 집중 양상이 중앙에 적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이 V자 모양으로 흩어져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배열은 비스듬한 타원형을 이루고 배열되어 있는 40~60cm 내외의 대형은 천석들로 이들은 대부분 패각층 아래의 거무스레한 굵은 입자의 흙 속에 반쯤 묻혀 있다. 이 돌들의 수효는 많지 않다.

이 돌들의 기능에 대하여 제3차 발굴기간 동안에 발굴단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당시에 제시된 설명들로서 첫째로 임시주거지에 관련된 시설물들, 즉 주춧돌 또는 천막을 눌러 두기 위한 돌들, 둘째로 하나의 가구로서 음식을 먹거나 조리할 때 사용한 테이블 같은 기능을 가졌던 것, 셋째로 음식을 가공할 때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들 등이 있다. 또는 일부의 돌들, 특히 대형의 천석류에 대하여서는 의식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 돌들은 돌의 모양이 모서리가 마모되어 있어서 물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할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점에 집중되어질 이유가 인위적으로 운반되는 것이외에는 없으므로 이 패총형성의 주인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 그 어떤 것도 발굴이 끝날 때까지 뒷받침될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 III. 진도의 현대패총유적과 행위의 복원

## 유적의 위치와 환경

진도는 우리 나라의 최남단 흔히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해남의 건너편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섬이다. 이 섬에서는 안면도와는 달리 섬이 커서 예로부터 농사를 위주로 생업경제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 농업과 함께 어업과 함께 양식업이 발달하여 있다. 섬의 남쪽 해안인 임회면 죽림리 일대에서는 대량의 굴을 비롯한 양식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곳곳에 굴껍질 더미가 동네의 주위에 흩어져 있다. 이 중 죽림리는 앞에 죽도라는 섬을 두고 거의 원형을 이루는 만이 있고 이 만을 돌아가며 해안동리가 발달하여 있었다. 만의 일부는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암석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중심의 동리 앞에는 작은 돌들이 널려져 있는 해안으로 되어 있다. 세멘트포장의 버스길(801번 도로)가 죽림리 중심부락에서 내려와 해안의 동리앞 해안을 따라 나 있고 이 길을 따라 동네가 발달하여 있는데 동네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벽에 구멍이 뚫려 버스길로 부터 들어갈 수 있는 헛간이 있었는데 폐충은 이 헛간내에 발견되었다(도면3).

헛간의 안쪽, 즉 길의 반대쪽으로 또 다른 하나의 창고가 있고 그 옆으로 이어서 주인이 기거하는 집이 있다. 안 쪽의 또 다른 창고는 안의 시설물들로 보아서 양식굴의 보존장 또는 실내양식장으로 생각되었다. 헛간의 내부에는 3개의 지점에 굴이 널려 있었는데 굴을 까는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였다. 헛간의 크기는 길 쪽으로 면한 벽의 폭이 대략 6m 정도이며 길이가 대략 10m 정도 이어서 20평이 좀 모자라는 정도의 크기의 블록 벽돌건물이었다. 건물의 중앙에는 길이의 중심을 따라서 거의 등간격으로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 역시 블록벽돌을 쌓아서 천정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길 쪽 벽의 중앙에 뚫린 입구를 들어와서 입구에 가까운, 즉 안쪽의 왼쪽편으로 두 개의 작은 폐각무지가 있었다. 길쪽 입구에 가까운 것을 조개무지A 그리고 안쪽의 것을 길에 가까운 순서대로 B와 C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조개무지 이외에도 이 헛간 안에는 드럼통, 고무호수 그리고 어망과 어구들이 좀 남아 있었고 입구의 오른쪽에는 시멘트가 쌓여져 있었다.

### 조개무지 A

길에서 입구를 들어서면 중앙에 첫번째 기둥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기둥과 벽 사이에 대략 직경이 2m 정도 내외의 구역내에 대부분이 굴껍질인 폐각이 흩어져 있었다. 중심에 깔린 푸른색의 천막을 중심으로 주위를 돌아가면서 5개의 무더기가 거의 원을 이루고 있었다(도면4;사진3). 그리고 중앙에는 푸른 천막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무더기의 사이는 폐각이 상대적으로 얇게 깔려 있거나 도는 바닥이 드러나 보였다. 이 각 무더기에는 20cm 정도 크기의 각력이 1개 또는 2개가 드러나 있거나 굴껍질로 덮여져 있었고 30cm 정도 크기의 블록벽돌이 2개소에서 발견되었다. 각력들은 대부분 폐각 무더기의 중심에 놓여 있거나 중앙부에 가까운 쪽으로 놓여 있었다. 발견된 각력들은 윗면이 평평하게 놓여져 있으며 상면에서 작은 폐각부스러기들이 발견되었다. 이 돌들은 틀림없이 굴껍질을 벗길 때 대고 깨뜨리든지 대고 까는 받침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폐각무더기 내에서 발견된 블록벽돌들은 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편평한 면을 이러한 받침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패각위 또는 바깥쪽으로 3개소에서 둥근 스티로폴이 발견되었다. 이 스티로폴은 어구의 일종으로 그물 속에 넣어서 그물이 뜨도록 하는 것으로 모양이 비행접시같이 생긴 것으로 크기가 직경이 30cm 내외이고 두께가 10여cm 내외가 되었다. 스티로폴들은 깔고 앉은 흔적이 역역하게 중심부가 압축되어 가라앉아 있었다. 이 외에도 패각 내에서 철사, 장갑, 담배꽂초, 만화껌종이, 미역, 소세지비닐포장, 빨대, 굴껍질, 파, 지푸라기, 병뚜껑 등이 관찰되었다.

사람들은 중심을 향하여 마주보면서 중심에 놓여진 굴들을 들어서 네모난 돌이나 벽돌 위에 놓고 까고 굴껍질은 그 받침들 중위에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사람들은 장시간의 작업을 위해 스티로폴 깔개를 사용하였으며 작업 중에 담배를 피우든지 간식을 먹는든지 하는 휴식도 취하고 대화도 오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업이 끝난 후에 사용하던 장갑을 그리 버리고 깔개도 그대로 둔채 간 굴만을 운반해 나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작업에는 일부의 각력이 굴껍질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작업은 1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조개무지 B

이 지점은 조개가 많이 분포된 것은 아닌데 굴껍질이 반달모양으로 깔려있고 그 중심에 A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크기의 윗면이 평평한 각력이 이 패각열의 중심에 숨어 있었다(사진4). 아마도 한 사람이 이 곳에서 이 각력을 받침으로 이용하여 굴을 깬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모양의 중심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작업하던 사람이 깔개를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아주 짧은 작업이어서 깔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곳의 작업은 패각의 양이나 물건의 분포로 볼 때 1회 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개무지로 보인다. 이 조개무지는 A지점에 조개무지가 형성되던 시기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 조개무지 C

B지점에 형성된 조개무지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패각의 양이 많고 발견된 물건들도 다양하다. 패각의 양은 A지점의 한 무더기의 분량과 비슷한 양이다. 반원을 그리며 패각이 흩어져 있고 그 패각분포의 중심에 상면이 납작한 각력이 놓여 있었다(사진4). 그리고 반원의 중심이 되는 것에는 스티로폴 깔개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 패각무지에는 패각 이외에도 담배껍질과 꽂초, 나무젓가락, 라면스프봉지, 목장갑, 굴껍질, 과자봉지들, 맥소롱병, 전선줄과 빨대 등이 남아 있었다. 과자나 스낵류의 음식들은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다른 작업과의 사이의 간식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에서 아마도 한 차례만의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 지점에 남겨진 굴껍질 까는데 소요된 시간이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지점의 조개무지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에서 이 지점이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고고학적인 유적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건은 극히 제한되어 나타날 것이다. 물론 현대의 물질문화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 화학제품들, 즉 비닐이나 스티로폴은 상당한 시일 흔적을 남기겠지만 결국에는 그 존재를 판단하기 어

렵게 될 것이며 받침용 각력이나 벽돌과 조개들만이 오랜 기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세 지점의 조개무지에서 행하여진 행 중에 가장 유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굴껍질 까는 작업에는 의자역할을 하는 깔개가 흔히 사용된다는 사실과 굴을 비롯한 조개를 깔 때는 작업에 편리하도록 대략 20cm 내외의 받침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편리한 시설이 곧바로 이용될 수 없는 짧은 시간동안의 작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깔개나 받침돌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실제로 진도의 다른 지점에서는 한 아낙네가 바가지 한가득 분량의 조개를 까는데 전혀 이러한 시설이 없이 행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한 지점에서 반복되는 경우에 이러한 작업 시설은 중첩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 IV. 과거와 현대유적의 상사성과 상이성

이 진도의 현대패총의 유적에서 관찰된 양상들은 이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고고학적인 유적으로 변하였다고 가정할 때 안면도에서 드러난 고고학적인 패총 유구와 대단히 흡사한 면이 있다. 첫째로 땅에 박힌 대형의 천석류의 돌들은 배치가 타원형을 만들고 있어서 진도의 A지점의 조개무지의 각력이나 스킨로폴의 배치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둘째로 진도의 조개무지에서 보이는 각력들의 크기나 모양새 그리고 패각 속에 묻힌 양상이 안면도 패총에서 드러난 각력들과 유사하다. 그런데 진도의 경우에는 작업 자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그 차수가 2 내지 3회를 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진도 A의 경우에는 중심에는 패각의 잔존이 거의 없었다. 반면 안면도 90년도의 유구의 경우에 패각이 그 빈도의 차이가 곳곳에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봉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작업의 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유구의 기본적인 기능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들이 대단히 불규칙한 규모와 모양의 구덩이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점도 안면도 패총유구의 특징이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는 안면도의 돌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크기가 60여cm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대단히 크며 이들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진도의 관찰에서 흔히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크기의 돌을 받침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비해서 차이가 나고 있으나 안면도 90년도의 유구가 받침이나 의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작업장의 반복적인 사용을 계획하였을 경우에 보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에 사라진 상태로 전혀 용기라고는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작업장에서 굴을 소비하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 작업장의 성격으로 볼 때 분명히 상업적인 굴 생산이었던 것이다. 안면도 90년도에 드러난 유구에서는 거의 완형에 가까운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굴 까는 작업을 위하여 반입되었다가 남겨진 경우와 다른 음식잔존물, 예를 들어 사슴의 턱뼈와 함께 굴까는 작업과 관계없이 폐기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 V. 민족지적인 관찰과 고고학적인 행위의 복원

진도유적의 관찰은 하나의 민족지적인 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관찰의 특징은 사람들의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남겨진 물질들의 잔존양상을 관찰한 것이

다. 이것은 전혀 이 곳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찰이나 질문을 통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었다면 보다 정교한 행위와 잔존물의 양상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도 유적의 발견은 상당히 우연한 것이었으며 사전에 치밀한 조사가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굴 생산과 관련된 제 행위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이 장소에서 일어난 행위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안면도의 유적은 산등성이를 타고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주거지는 능선의 보다 높은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90년도의 발굴에서는 돌이 깔려진, 앞서 설명한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적이 각기 다른 시대에 -청동기시대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점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동시대에 서로 기능적으로 분산된 유구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90년도의 유구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 부근에 전혀 주거지를 가지지 아니한 비교적 먼거리에서 단순히 이 지역을 방문한 자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이 지점에는 주거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거주와 유적양상이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다. 이 유적의 최대의 문제점은 패각과 드러난 돌들과의 관계일 것이다. 즉 다시말해서 패각층의 형성에 이러한 돌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던가의 문제이다. 앞서 제시된 바의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돌들이 진도의 현대패총에서 관찰된 바의 작업대로 사용되기 위하여 이 유적내에 반입되거나 또는 장시간동안 편안한 자세로 작업하기 위하여 의자로 사용하려고 반입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물론 의자는 진도의 경우처럼 쉽게 운반될 수 있고 스킨폴과 같이 어느정도 쿠션이 있다든지 보다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나무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지점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반영구적인 가구로서의 시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돌들의 존재는 안면도 이외에도 수가리패총에서도 돌들이 다량 분포된 소위 석조유구가 발견된 바 있는데 발굴자는 주위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큰 돌들이 앉기 위한 시설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심에 분포하고 있는 작은 돌들은 불에 달구어진 점으로 무엇을 굽기 위한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정 외 1981). 안면도 90년도 유구는 주거시설과 전혀 관련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 때 채집장과 주거지 사이에 채집장에 비교적 가까운 지점에서 주거지에 반입되기 전에 1차적인 가공을 하던 장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앞으로 이 장소에서 굴을 까는데 사용하였던 도구들이 발견된다든가 또는 이러한 돌들의 상면에 굴이나 조개를 까는 동안에 생긴 특징적인 흠집들이 발견된다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해안지방에서 굴 까는 데는 쇠로 만든 송곳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갈고리같이 생긴 송곳은 흔히 큰 못으로 만들었는데 굴껍질을 열고 그 속의 조개살을 꺼내는데 사용된다. 흔히 관찰되는 도구로 나무자루의 한 쪽에 굴껍질을 여는 큰 갈구리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보다 작은 갈고리가 있어서 조개살을 찍어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사시대의 조개가공에는 어떠한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패총에서 흔히 끝이 뾰족하게 생긴 석기가 발견되고 있어서 이것이 조개를 여는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받침들의 사용은 쉽게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 론

1990년도에 발굴된 안면도의 유구에 드러난 돌들은 이 패총유적과 관련되어 반입된 것인데 이 돌들은 이 지점에서 주거지나 다른 영구적인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 지점에서의 특수한 행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진도의 죽림리에서 관찰된 조개가공과 관련된 행위가 남긴 물질적인 잔존양상을 고려할 때 안면도 90년 유구는 이곳에서 조개가공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 돌들은 작업받침돌 또는 걸터앉은 일종의 의자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설명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루어진 변형 또는 도구의 발견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추기 : 진도 죽림리패총의 조사에는 문화인류학과와 성상희와 김유경 학생의 도움이 있었다.

## 참 고 문 헌

- 김병모와 심광주, 1990, 안면도고남리패총, 1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김병모와 안덕임, 1990, 안면도고남리패총, 2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정정원, 임효택 그리고 신경철, 1981, 김해수거리패총, 1. 부산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4책, 부산대학교박물관  
Binford, L.R. 1989. *Debating Archaeology*. Academic Press.  
Donnan, C.B. and C.W.Clewlöw Jr. ed. 1974. *Ethnoarchaeology*. Monograph IV. Archaeological Survey. Institute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Gould, R.A. ed. 1978. *Exploration in Archaeology*.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Hodder, I. 1982. *Present Past, An Introduction of Anthropology for Archaeologists*. New York. Pica Press.  
Kramer, C. ed. 1979. *Ethnoarchaeology : Implication of Ethnology for Archa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사진1 1991년도 안면도 고남리패총 유구노출

사진 1. 1991년도 안면도 고남리패총 유구노출



사진2 1991년도 안면도 고남리패총 발굴 : 돌들과 구덩이 배치 상황

사진 2. 1991년도 안면도 고남리패총 발굴 : 돌들과 구덩이 배치 상황



사진3 진도 죽림리 헛간내 조개무지 A

사진 3. 진도 죽림리 헛간내 조개무지 A



사진4 진도 죽림리헛간내 조개무지 B와 C

사진 4. 진도 죽림리 헛간내 조개무지 B와 C



도면 1 안면도 고남리 패총위치도

도면 1. 안면도 고남리 패총위치도



도면 2 1990년도 안면도 고남리 패총발굴 유구 평면도(돌과 구덩이 위치도)

도면 2. 1990년도 안면도 고남리 패총발굴 유구 평면도(돌과 구덩이 위치도)



도면 3 진도 쌍림지(죽림지) 현대조개무지 조사지 : 화살표가 있는 곳

도면 3. 진도 쌍림지(죽림지) 현대조개무지 조사지 : 화살표가 있는 곳



도면 4 쌍림지(죽림지) 현대조개무지 A의 평면약도 (원크기의 약 1/20)

도면 4. 쌍림지(죽림지) 현대조개무지 A의 평면약도 (원크기의 약 1/20)